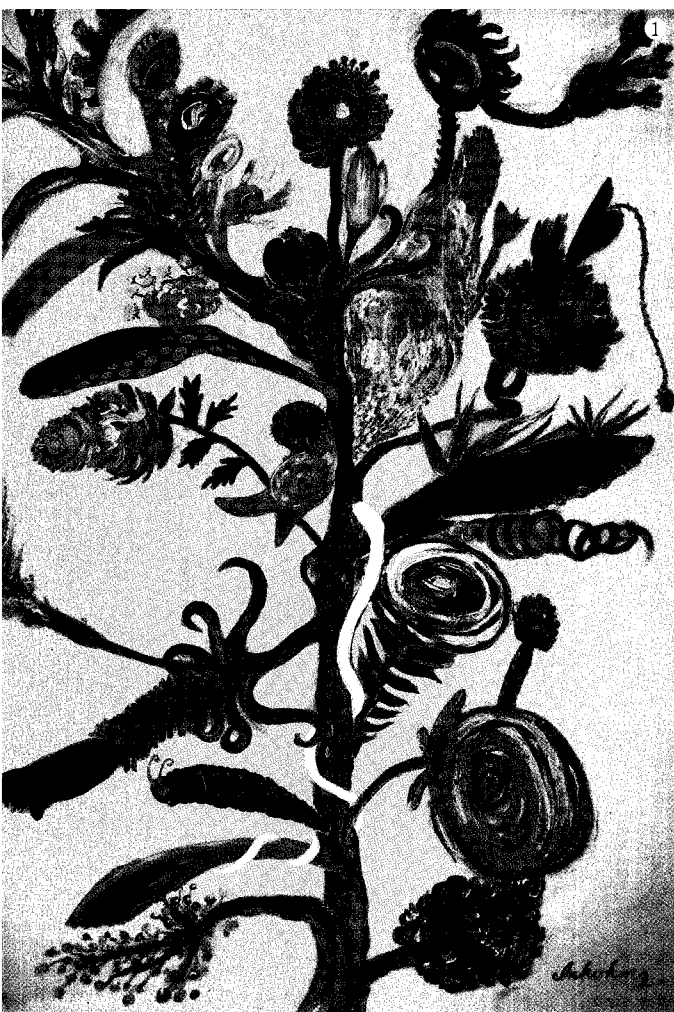


오리, 한 쪽의 그림 위에 노닐다.

# 홍인호 작가의 “Duck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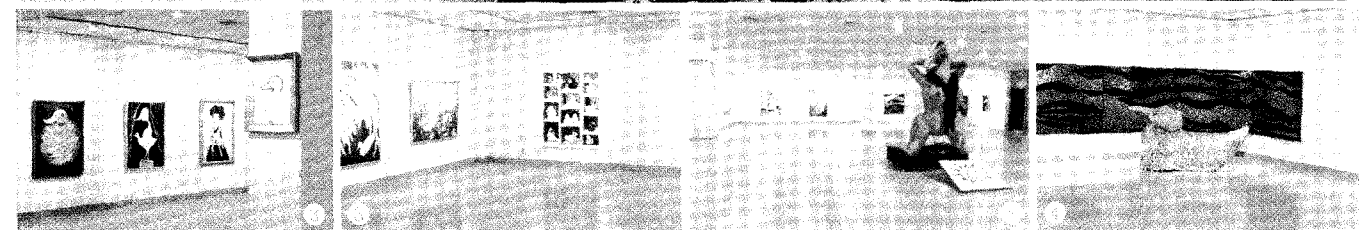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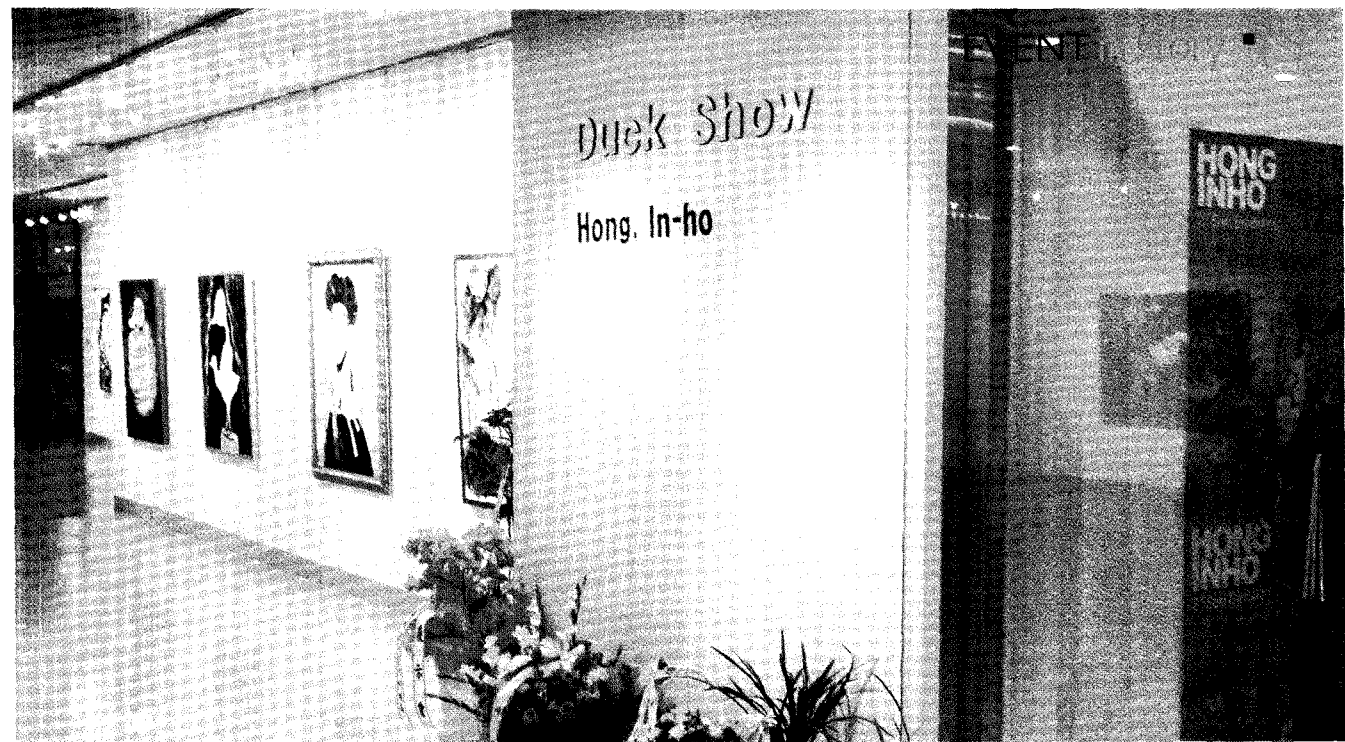
어느 날 협회로 날아 온 초대장.  
“Duck Show, 홍인호의 두 번째 개인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쓰여진 손바닥만한 종이엔  
파란 바탕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니  
그림 속 꽃들 사이에 노란 오리가 보였다.

글·사진 : 편집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미술전시관에서는 ‘오리大家’라는 오리요리전문점 대표이자 미술가인 홍인호 작가의 개인 전시회가 열렸다. ‘Duck Show’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하고 화려한 오리들이 전시장을 수놓고 있었다.

홍인호 작가는 거친 터치로 파랑, 분홍, 초록, 주황색 등 화려한 색들이 종이를 물들이며, 몽환적인 느낌으로 오리들을 표현하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꽃들 사이에서 노닐고 있는 오리들, 심지어 꽃과 하나가 된 오리, 산과 호수 등 자연을 배경으로 날고 있는 빨간 오리는 눈물이 흐르는 눈을 가슴에 간직한 채 하늘로 날아가는 것만 같다. 일명 ‘오리 작가’로 잘 알려진 이강소 작가의 무채색으로 표현된 오리들과 아주 다른 느낌을 전한다. 이강소 작가의 작품들이 그늘진 호수와 자욱한 안개가 휩싸인 백색 아니면 회색의 물감으로 칠해진 정적인 동양적 화폭이라면, 홍인호 작가의 작품들은 붉고 노랗게 만개된 꽃과 푸르른 배경, 줄기를 감은 흰색 뱀과 숨비꼭질을 하는듯 한 오리의 모습처럼 자유롭고, 초현실적이며, 생동감이 넘친다. 그림뿐만 아니라 그의 전시장에는 2m는 족히 되어 보이는 회화적 요소를 가미한 거대한 오리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었고, 마치 검은 강물이 흐



① 초대장에 수록되었던 그림, Temptation ② 오리에게의 헌화, Floral tributes ③ 전시관 전경 ④ 오리 조형물

르는 가운데 은빛 오리가 노니는 듯한 한 벽을 가득 메운 오리 조형물도 있었다. 서울 예술의전당 김미진 전시예술감독은 홍인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리와 일체된 자유정신'이라고 표현하며 "작가는 오리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자유롭게, 마음껏 그림을 그린다"고 평하고, "오늘날의 사조를 연구하거나 시대를 고민하면서 엘리트로서 작업해야하는 작가들과는 달리 방법론이나 형식을 집어던져버리고 오리와 일체된 자유로움 속에서 원시적이며, 거칠고 즉흥적으로 작품을 표현한다"고 그의 작품을 설명했다. 홍인호 작가에게 '본업'이자 '예술적 모티브'인 오리. 그에게 슬쩍 '음식점 운영과 예술이라는 오묘한 공존 관계'에 대해서 묻자 그는 간단명료하나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해왔다. "미술은 진혼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전시 작품 중 'Floral tributes'처럼 오리의 혼을 위로하며 현

화를 하기도 하고, 작년 AI 때는 식당에 오리 영정 그림을 놓기도 했다"고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오리 소품도 수집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여개에 달하는 아이템을 현재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전시를 하고 있다는 홍인호 작가. 언젠가 오리 박물관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서 오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 홍인호 작가와의 미니 인터뷰

Q. 원래 미술을 전공하셨는지?

A.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오리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항상 하고 싶었던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운영하시는 오리 음식점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A. 제가 운영하고 식당에도 오리 그림을 전시하고, 아



홍.인.호.

**작가 약력**

- 1994 University of Denver 졸업  
(전공 Mass Communication / 부전공 Art)
- 2005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 대학원 졸업
- 200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수료
- 200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학과 졸업

**개인전**

- 2006 토포하우스(서울)

**아트페어**

- 2006 고양아트페어

**그룹전**

- 2009 홍익현대작가회 그룹전  
현대회화의 만남전
- 2007 한국의자연, 빛의인상전 (프랑스, 파리)
- 2006 홍익 작가 연합회전
- 2005-2009 홍익화우회전
- 2005 한국현대미술 프라하 초대전(체코, 프라하)  
Amator전
- 2004 한독 교류 베를린 문화원 초대전 (독일, 베를린)
- 2003 아름다운 서울 그림전  
몽골전
- 2003-2006 코아트전
- 2003-2009 Com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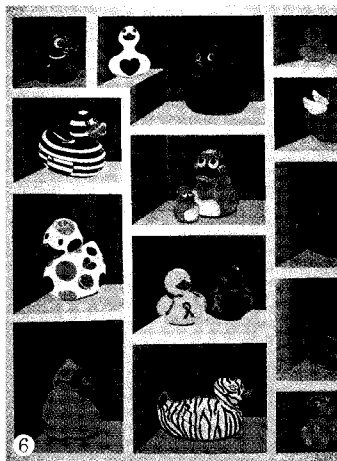
기자기한 소품들로 장식도 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저받침, 그릇 등도 다 오리모양으로 통일했었는데 귀엽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웃음) 처음 오신 분들은 갤러리 같다는 말씀도 하세요.

**Q. 주변 분들이나 단골손님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A. 가족들이 많이 지지해줍니다. 단골손님들이 이번 전시를 많이 찾아주셨는데, 다들 재미있다고 좋아 하셨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 저도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오리사랑은 계속될 것이라는 홍인호 작가. 기회가 된다면 오리를 테마로한 다양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오리에 새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의 작품을 계속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작품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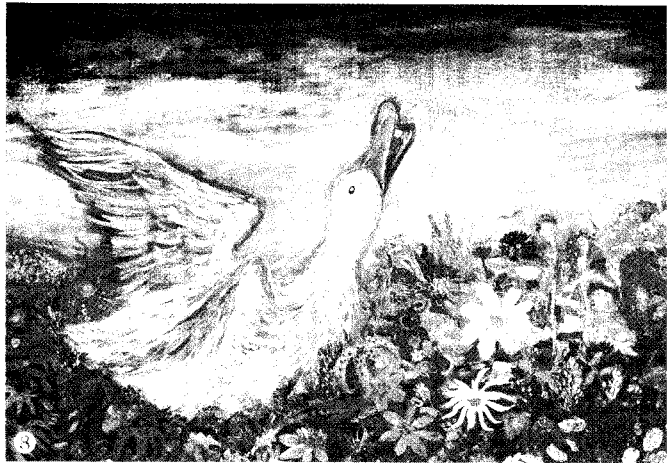
**오리와 일체된 자유정신**

김미진 예술의전당 전시예술감독, 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

홍인호는 오리를 주제로 화려한 색과 거침없는 터치로 그려낸다. 자연 속을 날거나 그 안에서 섞여 놓고 있는 오리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마치 꿈에서 보는 장면처럼 매우 몽환적이며 초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각각 다른 꽃잎들을 달고 있는 나무에 꽃의 일부분 인양 노란 오리도 함께 달려 있다. 그리고 배경은 푸른 색이 편편하게 깔려 있어 물위에 떠 있는 오리가 나무에서 뻗어 나온 꽃들과 엉겨있는 또 다른 풍경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림은 정면에서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이중적 시점을 갖고 있으며 그 어느 것이든 심상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붉고 노랗게 만개된 꽃과 푸른빛 배경은 한 여름을 암시하고, 즐거움을 감은 흰색 뱀과 숨바꼭질 하는 오리의 모습으로 계절의 화려하고 요란한 성격을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산과 호수 그리고 꽃들을 배경으로 붉은 색깔 오리는 가운데 눈물을 달고 있는 눈을 가슴에 품고 날고 있다. 하늘의 구름은 비가 되어 산에 내리고 폭포와 강이 되어 호수와 바다가 된다. 꽃들은 모두 흰색이 되어 날아 다니고 있다. 자연의 순환에 비추어 영혼이 된 오리는



5 Flying 6 My collection 7 Enchain 8 Sunset glow



슬픈 눈을 가슴에 품고 못다 한 꿈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홍인호는 “오리”사랑에 푹 빠져 있다. 오리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생업으로 하면서 틈나는 대로 작업을 한다. 그리고 오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수집한다. 그의 꿈은 오리박물관을 갖는 것이다. 홍인호는 오리에 자신을 감정이입하여 자유롭게 마음껏 그림을 그린다. 그것은 미술사의 발전에 있어 오늘날의 사조를 연구하거나 시대를 고민하면서 엘리트로서 작업해야 하는 작가들과 전혀 다른 행보다. 방법론이나 형식을 집어던져버리고 오리와 일체된 자유로운 속에서 표현되는 그림은 원시적이며 거칠고 즉흥적이다. 그래서 매우 생동감이 넘치며 생명력이 엿보이는 신비스러운 매력을 갖고 있다.

「예술철학의 경험」의 저자인 카시러는 “예술은 자유에 대한 표명이요, 확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술은 유한한 세계의 암흑과 불가해한 가운데 해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이데거도 심경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더 미적 향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였고, 장자 역시 자유로운 정신 속에서 자유로운 해방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서복관, 중국예술정신, pp.92-93(동문선, 1990)]

홍인호는 미디어정보시대며 포스트모던 해체와 조합

이라는 복잡한 시대에 가장 단순한 예술진리에 몸과 의식을 합하여 진정한 예술정신에 접근하다. 테크닉이 조금 어수룩하게 보이나 거침없는 표현이라는 한 가지 방향을 향해 꾸준히 몰두하는 그의 작품세계는 잠재된 원시세계로 접근하게 한다.

검은색 배경에 푸른색 풀들을 배경으로 보라색 톤의 오리는 작고 투명한 흰 눈동자와 노란부리, 그리고 거친 털의 표현과 함께 고독하지만 강하게 보인다. 털 전체가 꽃과 풀로 뒤덮인 오리는 죽음을 보여주지만 자연과 하나 되어 슬프지만은 않다. 털 섞인 원색과 속도감으로 덧칠된 선들은 야성적이며 나이브하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연결된다. 그는 오리가 되고, 그 오리는 다시 자연이 되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유로운 예술 정신이 된다. 그리고 꿈과 현실은 하나 되고, 시공간은 초월되면서 회화의 한정된 틀을 넘고 무한히 확장된 영역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물감과 터치를 잘 훈련된 솜씨로 섞어 표현하기보다는 안 보이는 마음의 형상을 담아 감흥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거칠고 빠른 속도로 칠하였다.

홍인호는 그의 삶과 일터 그리고 예술이라는 생활일체에서 경험되어 우러나오는 주제를 즐기면서 동시에 노력하면서 그린다. 그래서 독창적 예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앞으로의 작업이 기대된다.